

# MILAL & WORLD 03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 표지사진

미주밀알 단장님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 청사(Casa Rosada)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 02 | 칼럼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

### 04 | 나눔은 삶

시애틀밀알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기쁨

### 06 | 봉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

봉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 밀알

### 08 | 꿈꾸는 밀알

디즈니월드보다 더 큰 꿈을 꿈니다

### 10 | 하나님의 인도하심

새로 열린 문

### 12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2026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

### 14 | 살며 배우며

밀알 친구들과 마라톤을 준비하며 내가 깨달은 것

### 16 | 2026년 기획 연재3: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

죄와 타락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1호 | 2026년 3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칼럼

#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

“밀알은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생명과 목적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어 갑니다. 밀알 역시 하나의 복음과 하나의 사명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밀알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밀알은 장애인을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교 사역이 있지만,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함께하는 사역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밀알은 장애인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안에서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드러내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밀알은 하나”라는 말은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환경 속에 있지만,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최근 미주와 세계 곳곳에 새로운 밀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지역에 밀알이 있지만 멕시코에서도 새로운 밀알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밀알들이 각 나라와 땅에 심겨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 자기 부인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열매를 기대합니다. 어디에 심겨졌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밀알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세워진 밀알들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계신 지소장님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주에 약 20개의 밀알이 세워져 장애인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미와 남미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새로운 밀알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

이 고백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열매를 함께 바라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글 | 정진정 목사 (워싱턴밀알 단장)



# 시애틀밀알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기쁨



는 SMA에서 오히려 친구들을 통해 많은 기쁨을 받고 돌아옵니다. 저는 SMA에 참가하는 8명의 친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며 느낀 기쁨과 감사에 대해 나누까 합니다.

처음에 시애틀밀알아카데미(SMA)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아내의 제안에 사실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러 간 첫 날 SMA 친구들의 찬양을 듣고 나서 걱정되었던 제 마음이 왠지 모를 벅찬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신게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SMA 친구들과 같이 찬양을 부를 때 매주 이 친구들을 통해 큰 기쁨을 얻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예배들에서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봉사하러 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

첫 번째로 '제니'는 사랑이 많습니다. 제니는 음식을 잘게 잘라서 먹어야 하는 '원'이를 위해 점심 때 가위로 그의 음식을 잘라주고, '원준'이가 무언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원준아. 괜찮아, 누나 여기 있어"라며 그를 진정시킵니다. 흥이 많은 '원'이는 찬양이나 음악시간에 들썹들썹 춤을 추며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줍니다. 원이는 봉사자들에게 살짝 안기거나 산책 때는 봉사자의 손을 꼭 붙잡고 걷는 등 사랑도 잘 표현합니다. 색깔하기를 좋아하는 '원준'이는 미소가 참 예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면 엄지 척을 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저도 미소 지어 집니다. '오스틴'은 말과 행동이 참 예의 바릅니다. 그는 식사를 준비한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



가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모든 수업 시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현석’이는 그림을 예술가처럼 잘 그립니다. 현석이는 하트 모양의 패턴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창의성과 예술성에 매번 놀랍니다. ‘앤드류’는 항상 기쁨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는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활짝 웃으면서 방방 뛰고 점프합니다. 그의 귀여움과 밝음을 보면 저도 밝아집니다. 빨간색을 좋아해서 매번 빨간색 옷과 신발을 신는 ‘지원’이는 크래프트를 잘 만들고 다른 친구들이 만드는 것도 도와줍니다. 사진도 잘 찍고 노래도 잘 부르는 지원이의 순수함이 참 예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빗’은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데이빗은 항상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매번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멋진 친구입니다.

이렇듯 SMA 친구들은 매주 각자만의 매력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봉사자들과 소통합니다. 이들은 SMA에서 찬양, 음악, 북클럽, 크래프트, 탈춤, 볼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주 친구들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놀랍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제니, 흥이 많은 원이, 미소가 예쁜 원준이, 예의 바른 오스틴, 예술가 같은 현석이, 에너지 넘치는 앤드류, 순수한 지원이, 따뜻한 데이빗을 통해 매주 많이 웃습니다. 아마 저는 한주동안 SMA에서 가장 많이

웃을 겁니다. 이 여덟 명의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SMA를 이끄시는 장영준 목사님과 장아련 사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SMA를 통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길 기도한다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제 마음이 매주 따뜻해집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친구들을 안아 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친구들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시고 거칠해진 친구들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 주시는 사모님을 통해 SMA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함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과 장애인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두 분이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SMA 친구들 뿐 아니라 봉사자들도 항상 사랑으로 맞아 주시는 두 분 때문에 매주 SMA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항상 감사합니다.

글 | 장재연 (시애틀밀알아카데미 자원봉사자)



## 봉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 밀알

### How Milal Reshaped My Understanding of Service

Waking up on an early Saturday morning has never felt so good! With a new semester and new year starting, I have set my mind to serve in Milal with a grown heart and more understanding, which is always exciting. As the orientation began, I witnessed a growing community full of people from every walk of life, yet united by a firm determination to serve a singular purpose: bridging the gap between our local community and those with special needs.

As we shared 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among one another, I found myself grappling with questions contemplating the reason why I do what I do at Milal. This made me realize the common trope of putting oneself in others' shoes had its limitations: the learnings and perspectives developed only from experiencing the diverse nature and challenges of specific circumstances. Does my service become a futile gesture since I will never fully comprehend their struggles, for which I am merely a spectator? I valued the thought that the ostracized community with no legitimate reason to be different from anyone else had to face the unnecessary challenges of being treated differently due to the overly empathetic and sympathetic attitudes of the majority. This should not be the case, I thought. I am volunteering, not for empathy nor sympathy, but in pursuit of equality.

My first encounter with sign language was on my first day of Milal for the preparation of group performances in sign language in our Night of Milal event. I found this novel approach to communication very interesting, as I have always thought a concert would always involve some form of sound. I had not put much thought into it back then, but my curiosity for such means of communication was evoked again as I recently got paired up with my new buddy, Yedam. I am filled with genuine happiness and warmth when she leans on me to observe my singing and sign language. When I discovered her favourite song was “축복합니다” after sign-singing and singing her a bunch of other songs, I felt the establishment of a deeper connection between us. There really is not any hardship in understanding another better even when one's heart is communicated through a different way as long as it is sincere.

Ever since, I have stripped myself of the stereotype that there is only one familiar method of communication for making valuable connections. In other words, navigating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should not be one's weakness. Every day at Milal reminds me that we are all created in God's image; I love His inherent goodness and value in each one of us that is truly felt in Milal.





토요일 이른 아침의 기상 이토록 상쾌했던 적이 있었나  
요! 저는 새 학기와 새해를 맞이하며 더 성숙한 마음과  
깊은 이해심으로 밀알에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에  
서 저는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지역 사  
회와 장애인 사이의 간극을 좁히자'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단단히 결속된 공동체를 목격했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득 '나는 왜 밀  
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머릿  
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들 말하는 '역지사지  
'라는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  
한 특정 상황들과 그 안에 담긴 고충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온전한 관점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저  
관찰자일 뿐인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결코 100% 이해할  
수 없다면, 저의 봉사는 그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타당한 이유 없이 소외된 이들이 다른 이들의 과도  
한 공감이나 동정 어린 시선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인 대  
우를 받는 불필요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  
목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 봉사하는 이유는 동정이나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라,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어를 처음 접한 건 밀알에서의 첫날, '밀알의밤' 행사를

위한 수어공연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공연에는 당연히  
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게, 수어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당시에는 깊게 생각  
하지 못했지만, 최근 새로운 버디인 예담이와 짝이 되면  
서 이 소통수단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예담이가 제게 기대어 제가 부르는 노래와 수어를 가만  
히 지켜볼 때, 제 마음은 진정한 행복과 온기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여러 노래를 수어와 곁들여 불러주다 예담  
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축복합니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  
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가 익숙한 소통 방식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졌습니  
다. 다시 말해, 세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향해하는 것  
이 결코 누군가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밀알에서의 매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  
조되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밀알 안에서 진하게 느껴  
지는, 우리 각자에게 깃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가치를 저  
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글 | Jiwoo Son (2024-08 밀알러)  
번역 | 밀알&세계 편집부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 디즈니월드보다 더 큰 꿈을 꿈니다



지난해 여름, 캐롤라이나밀알은 지부 역사상 가장 멀고도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썸머캠프의 일환으로 뉴저지에서 열린 사랑의캠프에 참여한 뒤, 캐나다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다녀오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포 앞에 선 밀알 친구들의 해맑은 미소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분명한 승리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우리 안에 갇혀 있던 한계를 실제로 넘어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올여름,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산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 바로 올랜도 디즈니월드 방문입니다.

사실 이 계획을 처음 나누었을 때 걱정 섞인 조언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디즈니월드를 다녀온 한 장애인 가족은 “온 가족이 장애를 가진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가기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곳인데, 그 많은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가려느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차라리 사람이 덜 붐비는 장소를 권하시며, 만만치 않은 티켓 가격과 현지 물가 등 현실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올랜도는 아직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도도 머뭇거리던 중, 한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문득 이번 도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하는 소중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때는 더 크고 놀라운 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조사해 보니 밀알 친구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 중에서도 올랜도를 경험해 본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의 도전을 통해, 곁에서 함께 걷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지평을 더 넓혀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우리 밀알 친구들이 당당하게 “나도 디즈니월드 가봤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슴에 남을 특별한 기억,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넘어섰다는 성취감이 여행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줄 믿음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입장료와 식비까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작년의 그 먼 여정 역시 수많은 분들의 후원과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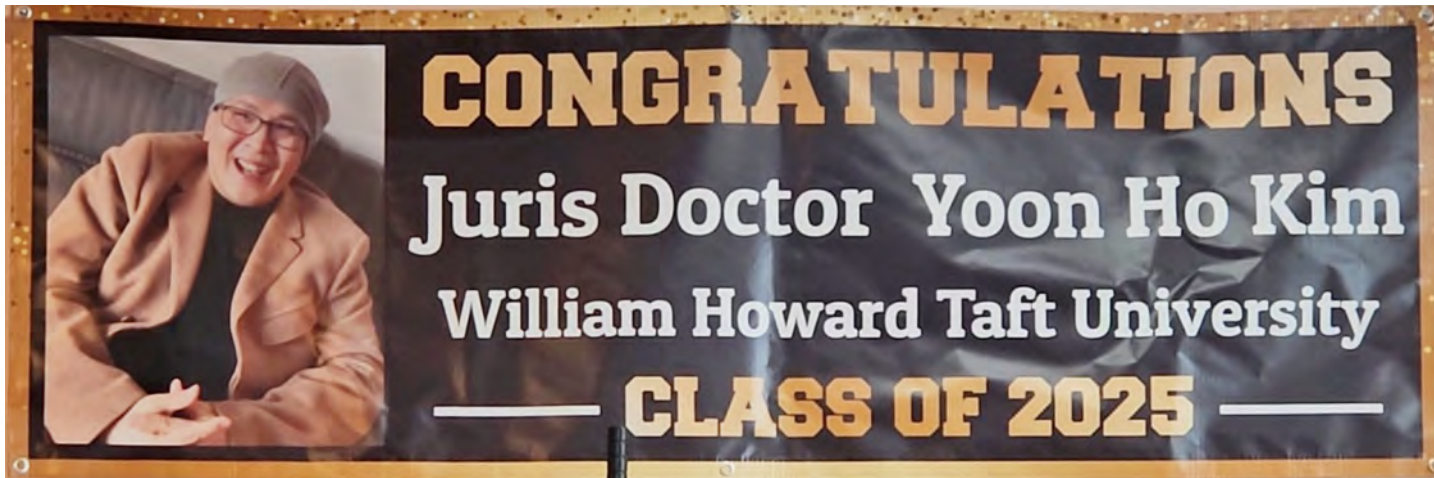
올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캐롤라이나밀알 친구들이 미키마우스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또 해냈어요!”라고 고백하게 될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무모해 보이지만 거룩한 도전을 위해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글 | 이승민 목사 (캐롤라이나밀알 단장)





## 새로 열린 문

제 이름은 윤 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최근 법학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상실, 부르심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신 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저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력을 잃었고,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깊은 우울 속으로 빠졌고, 이전의 나에 비해 반쪽만 남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주정부 지원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던 중,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각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돕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저는 밀알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목동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시설 설립에 반대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법대에 가야겠다고 결심했고,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제 삶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대 지원을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의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흔쾌히 추천서를 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법대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혼란이었지만, 저에게는 접근성이었습니다. 통학이 필요 없었고, 정해진 일정도 없었으며, 물리적인 장벽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조사를 통해, 모교인 퍼듀대학교에서 온라인 로스쿨 과정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했고, LSAT 시험을 치렀습니다.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의 장애지원 부서는 제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1년간의 좌절 끝에 저는 다른 학교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옮긴 학교는 매우 작은 학교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장애지원 부서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학생처장이 직접 제 모든 배려 사항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학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접근성이었습니다. 저는 시각적으로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제를 음성 파일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몇 시간씩,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긴 3년이 지나 저는 마침내 과정을 마쳤습니다. 쉽지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완주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합니다. 한때는 공공영역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공로를 실천하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강원호 목사님께서 저를 밀알교회에서 섬기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삶은 질병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부르심을 통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시력을 잃었지만 목적은 잃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하나하나가 새로운 열린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패배자가 아닌 감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김윤호 (뉴저지밀알)

주: 김 윤호 집사님은 14년전에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뉴저지밀알선교단 후원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 2026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 & 아르헨티나밀알 방문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26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미, 남미 전역에서 장애인 선교의 현장을 섬기고 있는 밀알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분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이사야 43:19)는 말씀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역환경 속에서 밀알공동체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단순한 보고를 넘어, 사랑의교실 운영, 봉사자 동원, 사역자의 영성과 자기 돌봄, 재정의 투



명성, 그리고 장애인 선교의 다음 걸음에 대한 고민 등 각 지역 사역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 아르헨티나밀알 사역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섬기고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장애인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역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식탁은 밀알사역의 본질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르헨티나밀알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깊은 연대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은 밀알공동체가 지

역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몸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모두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심어진 말씀과 기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만남들이 각 지역 사역 가운데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를 위해 귀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미주밀알 이사장이신 권준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으며, 밀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사명을 다시 불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 | 미주밀알 사무국

| 살며 배우며

# 밀알 친구들과 마라톤을 준비하며 내가 깨달은 것



저는 3년 전부터 건강해지고자 근력운동을 시작했지만, 달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책을 읽고 '나도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달려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했고, 100미터 달리기도 겨우 해내는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새 저는 일주일에 3~4번은 정기적으로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밀알 친구들과 러닝을 시작하고 뒤돌아보니,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는 밀알의 친구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을까 고백하게 됩니다. 비전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을 비롯하여 일이 되어가는 타이밍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그분의 경륜임을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마라톤에 참가해 가이드로 함께 뛰었던 봉사자이자 인투교회 팀장님이신 황예지 자매님과 밀알의 비전을 나누는 중, 올해 6월에 센트럴파크에서 장애인 마라톤 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지 자매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작년 11월 중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밀알 친구들은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친구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일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목적으로 친구들과 모이는 일이 밀알친구들에게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처음으로 플러싱의 한 공원에서 러닝을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작년 11월 중순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스키복처럼 아주 따뜻하게 입고 왔고 또 다른 친구는 얇은 옷차림으로 추워 보였습니다. 준비운동을 마친 뒤 친구들에게 뛰자고 아무리 말해도 쉽게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 셀 동안 뛸 거예요!"하며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겨우 끝다시피 뛰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드는 생각은 '밀알친구들이 러닝의 경험이 없어서 뛰기를 힘들어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다음 주 훈련 때는 한 명이 더 나와 세 명이 운동을 하는데 제가 "뛰어요"





하니 세 명이 너무 잘 뛰었습니다. 근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가 “멈춰요!”라고 소리를 지르니 그때서야 우리 친구들은 멈추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구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친구들 ‘러닝’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자신의 기준치를 찾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훈련목표입니다. 훈련이 끝난 뒤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 때는, 친구들 모두가 근육을 시원하게 늘리는 느낌이나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력은 좋지 않음 몸의 밸런스와 스트레칭이 약해서, 지금은 훈련할 때마다 그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하 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양이라는 친구는 “아따 참 좋다. 나 너무 행복해”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며 자신의 행복을 표현합니다. 러닝을 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각자의 성격과 개성, 그리고 특별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의 다름을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공통점은 러닝 시간, 날짜, 날씨, 장소 계획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며 묻습니다. 밀알 친구들의 특징이 정해지고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알면 자신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렇죠. 원래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면 더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말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물건의 배치변화, 엉뚱하거나 조금한 상황을 싫어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밀알의 아이들은 각각 개성이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같은 지적장애 집단으로 묶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인격체로서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재주를 발견하고 칭찬해 줄 때, 그들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우리 봉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마라톤을 준비하며 느낀 점은, 봉사자인 제가 친구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친구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을 함께 누릴 나의 가족입니다. 친구들은 단순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역자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6월 28일에 장애인 마라톤 Achilles Hope & Possibility 4M이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열립니다. 친구들은 각각 한 명의 가이드와 함께 4마일을 뛰게 됩니다. 현재 11명의 친구들과 11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휴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센트럴파크에 가서 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밀알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격려가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안전사고 없이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참가하는 친구 강국이기도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과 육신이 더욱 건강해지는 2026년 뉴욕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배한나 (뉴욕밀알 봉사자)

기독교세계관의 화두는 창조, 타락, 구속의 연속성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현실을 죄와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그러나 장애의 현실과 만날 때, 이 죄와 타락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이 조심스럽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장애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기획 연재3: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

## 죄와 타락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장애인신학이 구분하려는 중요한 질문

장애인신학은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인가, 타락한 세계의 한 모습인가, 아니면 그 둘과 구분되어야 하는 현실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신앙적 시선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타락은 그 결과로 인간과 세계 전체에 미친 왜곡된 현실을 의미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이 개인의 특정한 고통이나 상태를 언제나 개인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전체가 깨어진 현실 안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이 구분은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를 개인의 죄나 특정한 도덕적 실패의 결과로 이해하는 시도는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남겨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의 삶을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야 하는 자리로 몰아넣어 왔습니다. 장애인신학은 이러한 연결 고리를 분명하게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는 죄로 나타나는 유일한 결론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는 개인의 타락을 증명하는 표지만도 아닙니다. 장애는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한 모습이며, 그 자체로 인간의 도덕적 상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장애를 미화하기 위함도, 고통을 가볍게 여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분은 장애인의 삶을 불필요한 신학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신학적 책임에 가깝습니다.

장애인신학은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편에서 있습니다. 죄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현실입니다. 이 보편성의 고백 앞에서 장애인도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과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를 장애에 특별히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보편성을 스스로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신학은 타락의 언어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타락은 특정한 신체적 조건이나 인지적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왜곡과 세계의 불완전함을 설명하는 신학적 언어입니다. 따라

서 장애는 타락의 증거라기보다,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이해는 장애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장애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죄와 타락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구원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장애를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신학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해석은 복음의 능력을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축소시켜 왔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낙인찍기 위해 주어진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구분은 밀알의 현장에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밀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삶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그 삶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태를 죄나 신앙의 부족으로 해석하기보다, 같은 타락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동행자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장애를 이해해야 할 문제로 대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할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판단은 줄어들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죄와 타락의 언어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언어가 됩니다.

장애인신학은 확장된 세계관을 제안합니다. 진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렴하려는 노력입니다. 밀알가족 여러분께 죄와 타락이라는 익숙한 신학적 언어를 장애인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돌아보게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신학은 죄의 개념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개념을 복음에 더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복가주밀알 단장)



## 남가주

### LA 화요예배(2월)

**3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몸이 기억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미향 전도사, 특송은 문인표 집사님과 윤모세 목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강문구 집사님과 강에스터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2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0일:** 강에스터 목사님께서 "형통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민영옥 권사님이, 특송은 제시카송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옥주파운데이션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17일:** 주현철 목사님(서로 재현고 교목)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배덕선 성도님이, 특송은 김영직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24일:** LA, OC 연합으로 Zoom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 OC 목요예배(2월)

**5일:** 이준수 목사님께서 "우리를 옹아매고 있는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현웅 집사님이, 특송은 남윤정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알에서 인앤아웃 햄버거로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2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2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보배를 가졌으니"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 지련의 자매님, 특송 김지은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OC한인교회 임마누엘선교팀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19일:** 주현철 목사님(서로 재현고 교목)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김동환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사랑의교실 (2월)

**7일:** LA 브랜치에서는 스넥 타임으로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찬양 댄스곡에 맞춰 미러볼을 설치하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찬양하며 몸을 움직이고, 웃음과 에너지가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악과 찬양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4일:** Adult 브랜치에서는 요리교실을 통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완성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맡아 협력하며 요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일:** OC 브랜치에서는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더욱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받고,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남과 나눔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8일:** ELA 브랜치에서는 La Habra 300 Bowl로 볼링 아우팅을 다녀왔습니다. 스트

라이크와 스페어마다 서로를 응원하며 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2026년 한 해 동안도 남가주밀알의 모든 사역을 형통하게 이끌어주시고,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일곱 브랜치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 스태프와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 가운데 2026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6년 밀알 장애인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5월 18일~28일로 예정된 코소보밀알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길.

## 북가주

### 북가주 소식

- 매주 화요일 6시 30분부터 밀알화요예배가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1,2,4,5째 주,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셋째 주에 모임을 갖습니다. 풍성한 저녁식사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귀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실 북가주지역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 토요 사랑의교실이 산호세 사랑의교실(산호세새소망교회)과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료 교실에 장애인 가정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화요예배(2월)

**3일:** 새해 첫 예배로 임마누엘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귀한 애찬을 준비해 주신 장애인섬김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누리교회 유스로 구성된 앙상을 힐링하모니에서 함께 찬양과 특송으로 참여해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예진 자매님이 대표 기도해 주셨고, 김정기 목사님께서 '선한능력(롬 8:28)'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10일:** 저녁식사와 아름다운 연주로 예배다 크로마하프 찬양단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귀한 섬김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잔잔한 연주와 찬양으로 모두가 풍성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17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여 풍성한 저녁식사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렸습니다. 찬양단의 힘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일:** 산호세캘리포니아교회의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귀한 애찬을 나누며 따뜻한 저녁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 산호세 사랑의교실

산호세 사랑의교실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영성코디네이터 Robert Reese 선생님, 교육 코디네이터 윤시은 선생님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산호세 사랑의교실의 점심봉사로 산호세영락교회, 새소망교회, 새누리교회, 베델연합감리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미술과 음악 및 체육활동과 게임 등을 지도해 주실 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참가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지켜야 할 룰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참가자들 어머니들과 Tea Time을 가졌습니다. 2026년 사랑의교실 목적과 방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교실 친구들 그리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교실 친구들을 위한 2026 Art & Craft 계획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6월에 친구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고, 11월에는 Holiday Craft Fair에 참여해서 만든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험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의교실에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사랑의교실 친구들 모두 정소라 자매님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몸과 마음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해 주세요

-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연화 자매(재가장애인), 도한철 선교사(루게릭), 로사자매 아버지(건강회복), 이은희 작가(신장투석), 예진 어머니(회복), David Im 어머니(고관절수술회복), 씨니 집사(건강회복))
- 화요예배를 통해 만나는 지역교회의 성도들과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 공동체 밀알이 될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에 청년, 장년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매주 1:1 봉사자들이 부족하지 않고 늘 풍성한 사랑의교실 되도록.

- 사랑의교실에서 Art와 체육활동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할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밀알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평안과 위로를 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 분열 중에 일치 주시고,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밀알 가족 되도록.
- 밀알 스태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이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새로운 헌신자들을 통해 새롭고 행복한 사역 될 수 있도록.
- 지역의 장애인 예배부서들이 교회의 본이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나라를 살아가는 복가주가 되도록.

## | 시애틀

### 시애틀 사랑의교실 소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사랑의교실은 지난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이날 형제교회 다운타운캠퍼스에서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학 첫날이므로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점심은 현재 교회 공휴일에서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교실 되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오후 2:30까지 에드몬즈의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 시애틀 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예배와 김은혜 전도사님의 음악수업, 김초미 선생님의 북클럽 수업을 했습니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은 얼더우드 물에 가서 데이빗과 앤드류의 생일 잔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일을 맞은 데이빗, 앤드류 어머니들이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타코마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

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모두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장영준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고, 박현실 사모님이 음악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서 섬겨주신 풍성한 점심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첫 태권도 수업도 김홍철 목사님의 인도로 잘 했습니다. 2026년에도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 봉사자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애틀밀알선교단 이사회 개최

지난 1월 14일 오전 10:30에 페더럴웨이 베델침례교회(김영수 목사 담임)에서 시애틀밀알선교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사장 심우진 목사님의 인도로 모든 이사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날 2025년 재정 결산과 2026년 재정 예산이 통과되었고, 장영준 목사가 2026년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성낙환 이사님이 새로 이사로 영입되어 인사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Sunny 집사님, 낮은 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알립니다

- 1월 4일 장영준 목사는 세계밀알 신년에 배 참석을 했습니다.
- 1월 14일 시애틀밀알선교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화) 오전 10:30~오후 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목) 오전 11:00~오후 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

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SMA(화)와 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20명)

### 기도해 주세요

- 2026년 새해에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 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새로운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목)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를 위하여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시애틀온누리교회 사랑부 사역을 위하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 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 | 밴쿠버

### 밀알 사랑의교실 토요일모임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교실 Happy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월 17일에 개강한 2026년도 새 학기는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나는 마음으로 설렌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랑의교실은 언제나 환원과 함께 힘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단장 이상현 목사님은 1월 17일에는 요한복음 1:9를 본문으로 'Light: The Son of God having given up Himself for us', 1월 24일에는 시편 19:1을 본문으로 'The Resonance of Light', 1월 31일에는 요한복음 1:9를 본문으로 'Participating in the Glory of Being through the True Light', 그리고 2월 7일에는 요한복음 15:15를 본문으로 'The Light of Hospitality: We are Friends' 말씀을 전하였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밀알에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말씀을 심화하는 활동시간을 갖고 음악을 감상하는 랜선 음악여행을 합니다. 오후시간은 체조로 시작합니다. 1월 17일과 2월 7일에는 생일축하파티를 했고, 엄마들은 기도회로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점심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10일 참빛교회(담임목사 임건택), 1월 17일 조이풀교회(담임목사 김영남), 1월 24일 류태준, 김미숙 집사님 가정, 1월 31일 사랑하는사람들교회(담임목사 전진우), 2월 7일 밴쿠버순복음교회(담임목사 김성준) 마리아여전도회. 감사합니다.

## 시네마데이

1월 24일에는 오후시간에 시네마데이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관에 온 것처럼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함께 영화를 즐겼습니다.

## 만남과 헤어짐

밴쿠버밀알에는 이로운 친구와 허여나 친구가 새로 함께 하여 모두가 반가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밀알을 너무 좋아하던 예은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은이는 물론 모두가 마음 아파하며 주님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 밀알 1일단기선교

1월 31일에는 성산교회(담임목사 정운달) 청년부가 데미션으로 사랑의교실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과 관심을 나누었습니다. 밀알 1일단기선교는 시간이 많이 내지 않고도,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아주 특별한 선교입니다. 벌써 10년 이상을 격월로 밀알을 방문하는 성산교회청년부는 캐나다 크리스천신문 2월 6일자 전자신문에 ‘밀알선교단을 통해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는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회나 기관 단체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604-339-4417).

## 밀알러(발론티어) 리쿠르트

Love in Action, Faith in Motion! 밀알러로 함께할 발론티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좋은 지원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봉사자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vancouvermilal.com](http://vancouvermilal.com)>volunteer

##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604-339-4417) 밀알선교사역나눔은 설교, 선교설명회, 선교박람회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밀알선교사역을 위해 후원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giving@vancouvermilal.com](mailto:giving@vancouvermilal.com)

## 기도해 주세요

-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밀알 사역이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소서.
-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지역교회 및 관심 있는 그룹들과 장애인"선교"하는 밀알사역을 나누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옵소서.
-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소서. 밀알러를 포함한 동역자들과 재정이 풍성하게 연결되고 부어지며, 장애인선교를 위하여 함께 하는 이들과 기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 2026년에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 기도와 성령으로 섬기는 밀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밀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밀알,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굿즈프로젝트 '투게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사역에 인적, 물질 힘을 더하는 결과를 주옵소서.
- 밴쿠버밀알러프로젝트 '꿈너머 꿈' 조직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연결이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나라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 밀알러 엠티, 3월 13-14일, 즐거운 봄소풍, 4월 25일,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 5월 24일, 제1회 희망여행, 5월 29-30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밀알과 함께 하는 이들을 일으키시고, 밀알선교를 후원하는 이들을 일으켜 주소서.
- 단장 이상헌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텍사스

### 토요 사랑의교실

10시부터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bible study와 Art&Craft 활동을 설교중심으로 분반하여 진행하고, Gym으로 옮겨가서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bible study와 Art&Craft 반을 스위치해서 진행한 후 음악치료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커리로 섬겨주셨고, 3일

에는 조이풀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으로 섬겨 주셨으며, 10일에는 밀알선교단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에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mailto:txmilal@gmail.com)

## 밀알오케스트라 5기단원 모집

밀알 오케스트라에서 2026년 5월에 있을 정기연주회에 함께 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가능하고, 매주 토요일1:30에 모여 리허설을 합니다. 5회 정기연주회는 좀더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준비 중입니다. 기약이나 계약에 관심 있는 15세 이상의 지원자는 텍사스밀알로 문의해주세요(267-67-5971)

## 밀알아카데미 복학기

2월 12일부터 2026년 텍사스밀알 밀알아카데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새 태권도 띠가 녹색으로 변한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이들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악기 기부를 받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부해주세요. 기부를 원하시면 텍사스밀알로 연락주세요.(267-467-5971)

## 텍사스밀알 합창단원 모집

하나님을 노래를 통해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문의: 267-467-5971, [txmilal@gmail.com](mailto:txmilal@gmail.com)

## 소식 수정공고

지난 1월호 2025년 밀알 성탄 전체 모임 소식에 "Intellichoice에서 후원해 주셔서" 봉사자들 아침 식사를 섬긴 것은 그 기관이 아닌 기관을 섬기는 이길식 후원자님 개인으로 후원해서 진행되었음을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명확한 방식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텍사스밀알을 통해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도록
- 텍사스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이 확대될 수 있는 합당한 만남이 있도록
- 현재 봉사자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도록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이 그룹을 조성하게 하여서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도록
- 지역의 여러 교회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참을 보여줄 수 있도록
- 5월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최선으로 준비되도록
- 합창단원이 모여서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 재정보고 2025년 12월

### | 남가주

#### ■ INCOME: \$34,281.85

**Individuals \$6,926.00** \$30.00 Hyoung Il Seo, Jack C. Kim, Youn G Ro / \$36.00 Missionary Deborah / \$50.00 Hye Ran Lee, In Soon Chung / \$100.00 Anthony D & Chun C. Gamble, Eunsook Park, Ho Myoung & Won Sook Lee, Sook Hee Chang, Sung Jin Kim / \$200.00 Jaemin Youk, Kyung Won & Sang Mi Kang / \$300.00 Byung Sam Min, David Heung & Jeong Mi Kim, John & Jae Hyang Lee, Jong Hyun & Chansook Koh, Won H. & Song S. Sunu / \$500.00 Chong Sil Spaven, Steven Chul Kim, Young Sun Lee & Young Hee Lee / \$1,000.00 Inju Uyehara / \$1,800.00 Eun Chul Lee & SoonHee Lee

**Churches & Businesses \$13,250.00** \$50.0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00 All Nations Church – GM, God's Righteousness Church, Rohthem Presby. Church, Salt Covenant Church / \$150.00 New Life Korean Church / \$200.00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LA Mission Church of Hope,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250.0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 \$300.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Gana Church, H.D. Grace Church, Hollywood Mobile, Irury LLC, Las Vegas Vision Church,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 California, The Church of Joy, The Lord's Community Church, The Love Korean Church / \$500.00 Sunnyside Pre.Church / \$650.0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900.00 Dong Shin Presby. Church of S. Cal., The Korean Church of O.C / \$950.00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 \$1,500.00 Korean American Autism Foundation / \$2,600.00 Korean Gospel Presbyterian Church (General Mission)

**Specials & designated \$14,105.85** \$50.00 Fidelity Charitable / \$1,700.00 Designated for Rent / \$7,000.00 Tuesday Worship (\$500.00 Kyung Won & Sang Mi Kang, \$6,500.00 Okjoo Foundation) / \$800.00 Sophia Yoo for OC Jjangmyeon Day / \$1,000.00 GMU NCI / \$3,455.85 Camp Fundraising / \$100.00 Class AGAPE

#### ■ EXPENSE: \$37,372.34

**Class AGAPE \$1,069.28** \$808.98 Meals & Snacks / \$140.12 Materials & Supplies / \$120.18 Events & Meetings

**Adventure AGAPE \$54.05** \$54.05 Pre-visit expense

**Media Mission \$2,511.31** \$1,375.00 M&W Publication / \$380.05 PO Box / Return mail / \$756.26 Website Maintenance

**Meetings & Events \$141.87** \$39.82 Pastor Junwoo Lee / \$102.05 Pastor Jae Chul Lee

**Charitable Supports \$3,283.23** \$500.00 Periodic Supports / \$300.00 Palm Misson Church / \$200.00 Class Reimbursement / \$163.13 Congrat Flower for James Worldwide / \$420.87 Shimbang / \$1,400.00 Tuesday Worship / \$299.23 Thursday Worship

**Fundraising Expenses \$1,649.38** \$1,235.10 Merchandise / \$414.28 Packaging Supplies

**Payroll Expenses \$9,268.38** \$5,803.66 Salaries & Wages /

\$629.72 Payroll Tax / \$840.00 Employee Benefit / \$1,995.00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17,625.92** \$5,011.23 Rent / \$60.89 Woongjin / \$332.25 FBM / \$136.78 Telephone & Internet / \$301.44 Electricity / \$26.14 Office supplies / \$141.80 Repair & Maintenance / \$490.00 Dues & Subscription / \$4,312.44 Alliance Fee for America Milal (for Nov. & Dec.) / \$6,403.00 Insurance / \$196.95 Office Meals / \$213.00 SBA EIDL Interest

**Auto Expenses \$1,768.92** \$643.09 Gas / \$1,125.83 Maintenance

**Previous Carry over Balance \$56,378.5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53,288.06**

####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22,820.00** (Churches & Businesses \$600.00 \$300.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Irvine Onnuri Church) / (Specials & designated \$22,220.00 \$1,000.00 Julianne Lee designated for Jonghoon Lee / \$220.00 Pastor Lee's Booksale / \$6,000.00 Milal Night Brochure Ad. / \$10,000.00 James Worldwide / \$5,000.00 Chong's Foundation)

**EXPENSE \$67,277.90** (Class AGAPE \$3,732.78 \$3,732.78 Teachers' Compensation) / (Scholarship \$63,537.12 \$5,400.00 Collegians / \$18,000.00 Ggoom Na Mu / \$2305.39 Designated / \$3,500.00 Third Countries / \$7,066.25 Reserved Ministries Support / \$1,000.00 Emergency Scholarship / \$10,000.00 Moon Foundation / \$10,000.00 James Worldwide / \$5,000.00 Chong's FF / \$900.00 Volunteer Aids / \$365.48 Award Ceremony) / (Bank Fee \$8.00)

**Previous Carry over Balance \$91,727.3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47,269.48**

### | 북가주

#### ■ INCOME: \$7,726.74

**Individuals \$3,150.00** \$40 김애경 / \$50 Zhenji Li, 김신자, 김영, 나정화, 정찬미&이석권 / \$60 김성준 / \$100 Klepeis Family, Jonathan&Joung Ok Han, 공은정&명진, 김만종&정애, 안소영 / \$200최영훈&재현 / \$300 김정기&남경아, 오영수 / \$500 김미정 &정정숙&김문희, 정소라가정, 차현상&김은미

**Churches & Businesses \$2,256.74** \$56.74 IBM / \$100 브루스 리미용실,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트레이시주은혜교회 / \$200 Luxe Apparel & gift, the Light of Christ Church / \$300 실리곤밸리장로교회, 심포니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밀알목장) / \$600 SF사랑의교회

**Designated \$2,320.00** (사랑의교실 \$200: 안수빈 가정) / (청년 밀알 \$300: 엠마오선교원) / (화요예배 \$320: \$100 이강진&권유진 / \$220 전송화) / (연말선물 \$1,500: 뉴라이프교회)

#### ■ EXPENSE: \$12,616.35

**Mission Expenses: \$8,960.70** 사례비(5인) \$7,342.27 / 선교활동비 \$275.73 / 미주밀알지원 \$1,042.70 / 은급비 \$300

**Admin. & Management: \$2,190.96** 유틸리티 \$151.42 / IRS Tax \$489.54 / 사무실임대료 \$1,400 / 회계비4Q2025 \$150

**Auto Expenses: \$21.99** 세차 \$21.99

**Media Mission: \$1,442.70** 밀알&세계 발송비 \$338.10 / 밀알 &세계 인쇄비 \$1,104.6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8,823.8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3,934.23

## | 시애틀

### ■ INCOME: \$15,625.00

**Individuals \$5,700.00** \$30 남숙희, 정은옥X2 / \$50 이영자, 조성배, 박진경 / \$100 김해정, 송인숙, 경자훈, 김상수, 오수미, 황영자, 류준명, 노현숙X2, 윤태준&이정주X2 / \$150 김복조 / \$300 김초미, 고승현 / \$460 장영준&장아련 / \$500 김도영 / \$650 무명 / \$1,000 Thomas Lee, 이명운

**Churches \$6,710.00** \$100 벤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화평교회, 퓨얼업 한인장로교회, 순복음큰빛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시애틀 물댄동산교회, 목양감리교회 / \$150 페더럴웨이 벤앨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 \$300 시애틀 은혜장로교회, 선한이웃교회 / \$360 선한목자교회 / \$400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 \$500 시애틀 먼저사랑교회 / \$600 시애틀 뉴송장로교회 / \$800 시애틀 행복한교회 / \$1,100 낮은울타리교회 / \$1,200 타코마 새생명장로교회

**Businesses \$800.00** \$100 임학수CPA X 2 / \$300 Fair Ridge Law Firm, U&T Financial

**Designated \$2,415.00** \$1,550 SMA & TMA / \$865.00 화장품 Fundraising

### ■ EXPENSE: \$14,129.04

Mission Expense \$3,828.44 / Admin & Management \$1,873.20 / Media Mission \$1,283.32 / Class AGAPE \$162.05 / 상회비 \$1,618.20 / SMA&TMA \$1,381.58 / Outreach & Retreat \$1,500 / Tax \$447.97 / Special event \$202.95 / USPS Bulk Mail \$370.00 / Insurances \$417.06 / Pastoral Visit \$744.27 / Retirement Plan \$300.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67,228.11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8,724.07

## | 벤쿠버

### ■ INCOME: \$6,170.00

**Individuals: \$74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정미영 / \$30 원소현, 테레사치 / \$50 이혜영, 오정석 강향숙, 이재림 / \$100 Inok Choi Jung, 이상현유혜정 / \$200 하준석

**Churches & Businesses: \$3,500.00** \$100 헤브론교회 / \$200 오로니아, WJD Foundation / \$300 한소망교회 / \$900 그레이스한인교회(1/4) / \$1,800 벤쿠버순복음교회(2025년 2/2)

**Specials & Designated: \$1,930.00** 사랑의교실 \$1,350.00(\$100 광혜경, 김계은, 허경찬(예나) / \$150 이상화 / \$300 김타숙 / \$600 서동구) / 1월 사랑의교실 예배헌금 \$330.00(\$10 윤관진, 김토니, 서동구 / \$20 김도건, 에드윈, 이해 / \$40 이로빈 / \$50 이에담, 박수영, 장민음, 이상현) / 밀알러오티 런치 \$250.00(참빛교회) / Designated \$100.00(김타숙)

### ■ EXPENSE: \$17,264.55

**Payrolls: \$3,543.40**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10,894.09** 활동비 \$49.53 / 밀알&세계 \$5,080.61(\$2,320.61 - 2025년분 2차 + \$2,760 - 2024년분) / 대외선교 \$3,876.00(멕시코 비야에르모사 세미나지원 \$276 / 본부분담금 \$3,600 - 2025년분) / 대외회의 \$1,887.95(단장컨퍼런스 항공료)

**Events: \$251.58** 캐슬턴파크 \$230 / 재즈페스티벌 \$21.58(미지출금 정산)

**Class AGAPE: \$379.19** Happy Together Class \$236.73(통신비 \$61.60 / 줌사용료 \$166.84 / 무비데이 \$8.29) / 밀알러오티 \$142.46(피자 \$124.68 / 음료 \$17.78)

**Admin & Management: \$452.93** General \$452.93(통신비 \$67.20 / GoDaddy 웹사이트 구독비 \$349.34 -10년치 일괄지불) / 은행피 \$11 / 미화환전수수료 \$25.39

**Taxes: \$486.65** payroll (1월)

**Auto Expenses: \$1,018.71** 운행비 \$815 / 보험 \$203.71 - 2회차

**Designated: \$100.00** 김타숙

**예비비: \$138.00** 파라과이 부친상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6,579.4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4,515.06

## | 텍사스

### ■ INCOME: \$8,804.09

**INDIVIDUALS: \$1,15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 &이선화, 김희경, 정선훤 / \$80 정호영 / \$180 채경수&임현정 / \$300 장덕환 / \$400 박진영

**CHURCHES & BUSINESSES: \$1,457.09** \$7.09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나눔교회, 빛과소금의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JDJ Mission, 제자침례교회 / \$300 주님의교회, 달라스참빛교회

**DESIGNATED: \$6,192.00** (사랑의교실: \$200 무명 / \$100 밀알자모회 / \$2,192 The One Hero Project) /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구분진) / (Scholarship: \$3,600 남가주밀알)

**FOOD SUPPORT: Escape Bakery, 조이풀교회, 밀알선교단**

### ■ EXPENSE: \$6,227.42

**MISSION EXPENSE: \$4,466.02**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350 / 지단상회비 \$214.81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 이사회 모임 식사 \$106.56 / 지역교회방문 \$21.38 / 달라스투게더회장 축의금 \$100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419.98** 디렉터 \$60 / 점심 \$359.98

**ADMIN & MANEGEMENT: \$1,341.42** 장소사용료 \$200 / 카드 등재정관련수수료 \$41.73 / 통신비 \$211.20 / office supplies \$13.54 / IRA tax \$229.50 / NTTA toll \$240 / Gas \$127.45 / Insurance \$100 / 우표구입 \$78 / CPA 수수료 \$1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8,301.02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0,877.69

#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 실행단원( ) 후원단원( ) 월 \$5( ) \$10( ) \$20( ) \$30( ) \$50( ) \$100( ) 그외 \$( )

서명: \_\_\_\_\_ 날짜: \_\_\_\_\_

##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현재는 Zoom으로 드리는 월례기도회로 대체)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렌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wheat@yahoo.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b>세밀연 미주총단</b>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b>세밀연 유럽총단</b>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b>세밀연 한국총단</b>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b>기타지역</b>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